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화살표의 미학적 활용에 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이 성 수

화살표의 미학적 활용에 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이 성 수

인 준 서

이성수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김 정 희 (인)

심 사 위 원 김 성 복 (인)

심 사 위 원 정 정 주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순한 형태의 기호를 예술작품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기호는 정보전달을 위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고안되고 이를 위해 가시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자칫 도시의 공해가 되기도 한다. 본인은 이러한 기호에 다시 장식과 은유를 부여하여 실용적 의미 뿐 아니라 사색의 단초가 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려 시도하였다. 기호의 포괄적인 정의가 ‘다른 것을 재현하거나 지시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화살표를 대표적 기호로 선택하여 기호의 예술적 활용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2015~ 2017년 제작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첫 번째, 기호의 예술적 사용의 의의와 확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두 번째, 가장 보편적인 기호인 화살표로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에 대한 은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모양에 대한 풍자, 형태적 유사성에서 오는 초현실적 연상작용을 활용한 아이콘 만들기를 통해 기호를 예술작품에 활용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1. 서론	1
2. 본론	3
가. 작품형성의 배경	3
1) 기호에 대한 관심	3
2) 화살표(arrow sign)의 유래와 의미	5
3) 연상 작용을 활용한 화살표의 은유적 접근	6
나. 작품표현방법	8
1) 형태와 구성	8
2) 색채표현	13
다. 작품분석	15
3. 결론	31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I am what is around me 220*120*120cm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 붕대, 유화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2017	15
【작품 2】 pointer 220*30*40cm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채색, 투명 우레탄 코팅 2017	17
【작품 3】 love 150*120*20cm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채색, 투명 우레탄 코팅 2017	19
【도판 4】 소통 드로잉 oil on canvas 2015	21
【작품 5】 소통 100*60*10cm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채색, 투명우 레탄 코팅 2015	21
【작품 6】 Confrontation 120*130*120cm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 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2017	23
【작품 7】 골방의 어거스틴 드로잉 oil on canvas 2015	25
【작품 8】 골방의 어거스틴, 200*110*10cm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 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2016	25
【작품 9】 화살에 맞은 성세바스찬 스케치 oil on canvas 2015	27
【작품 10】 화살에 맞은 성세바스찬70*70*50cm 스테인레스 레이저커팅, 아 르곤 용접, 거울광 2017	27
【작품 11】 이카루스 드로잉 oil on canvas 2015	29
【작품 12】 이카루스200*250*50cm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2017	29

도 판 목 차

【도판1】 알레산드로 비토리아 (성세바스찬 1600, Marble, San Salvatore, Venice)	10
【도판2】 성세바스찬 해부도	11
【도판3】 Saint Augustine, by Philippe de Champaigne, 1650	12
【도판4】 The Fall of Icarus - Peter Paul Rubens	30

I. 서론

기호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문자·표 따위의 총칭이다.¹⁾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질서유지와 의사소통을 위한 이 기호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공공미술을 공부하면서 본인은 거리의 표지판이나 공공을 위한 실용적 신호 등 도시에 가득한 이 기호들, 특히 시각 기호들이 도시에 어떤 미학적 영향을 주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디자인적인 어울림이나 공간 안에서의 조화 등 기능과 조형적 수단으로 그것들을 과소평가하였다. 그러나 차츰 이러한 기능적인 기호나 표지판이 단순한 정보전달의 도구를 넘어서 사회 속에서 일종의 공통의 경험으로 존재함을 깨달으면서 이것들을 예술작품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인은 널리 통용되는 시각적 기호들로 사회 통제를 위한 기능적 용도가 아닌, 심리적 전달이나 깊이 있는 철학적 담론을 담을 수 있는 예술적 활용의 방법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초기 기호학에서 발견하였다. 기호학은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을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사실 예술작품이라면 어떤 작품이나 다 기호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쉬르의 관점에서 예술작업을 간단히 분석하자면 예술작품은 기표가 되고, 그것이 담은 미적 경험은 기의가 될 것이다. 기의가 정신적 개념이라면 기표는 물질적인 신호로 해석된다.²⁾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일반적 개념의 기호로 해석되는 복합적인 예술품이 아닌 기호형태 자체를 통한 작품 창작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특별히 주목한 기호는 화살표이다. 화살표는 방향성을 보여

1) google 사전

<https://www.google.co.kr/search?newwindow=1&dcr=0&q=%EC%82%AC%EC%A0%84#dobs=%EA%B8%B0%ED%98%B8&spf=1511756723265>

2)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기표(기호 표현, 의미하는 것 signifier)와 기의(기호 의미, 의미되는 것 signified)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이숲, 2013, P59

줄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도시의 신호임과 동시에 날카로운 끝을 지닌 모양 때문에 공격성, 비난, 집중 등 다양한 심리적인 연상을 주는 기호이다. 또한 지시라는 초기적 형태의 의사소통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폭넓은 요소로 예술작품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시각기호를 예술 창작물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화살표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고 그 형성배경과 표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단순한 기호를 예술작품의 표현 언어로 확장하기 위한 기호학 이론들을 취합하였다.

둘째,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인 화살표를 활용하여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에 대한 은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모양에 대한 풍자, 화살표의 형태적 유사성에서 오는 초현실적 연상작용을 아이콘의 형태로 만들고 그 형성과정을 서술하였다.

셋째,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화살표를 이용한 은유적, 연상적 작품들을 평면 드로잉에서 출발하여 입체적인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과정까지를 형태와 색채의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기호에 대한 관심

도시에 설치되는 표지판, 교통신호 등의 시각기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명시적이라는 점이다. 의미전달과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개 장식은 배제되고 형태가 단순해지며 실용적이기만 할 뿐 미학적 추구와 상관없이 설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도시의 시각기호들은 시각공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건물의 간판들과 교통 표지판들이 그렇듯 시각적 기호들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공해로만 느껴지던 시각기호들이 어느 순간 내 상상력을 자극하여 예술적 영감을 일으키는 미적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어느 힘든 저녁 집으로 가는 막다른 길에 붙어있던 u-turn기호가 주었던 메시지는 안전과 질서를 위한 의미전달의 그것이라기보다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삶에 대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이런 체험에서 본인은 이미 널리 사용되며 공통의 경험이 되어버린 도시의 시각적 기호를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도시의 시각기호가 예술작품에 사용되어 철학적 사색의 도구로 사용될 방법을 찾는 것이 본인이 추구할 궁극의 연구과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과 결과물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시각적 기호를 예술적 도구로 사용하는 데 대한 첫 번째 이론적 지지는 초기(proto)기호학의 선구자인 성어거스틴(354~430)이 새롭게

발전시킨 ‘규약적 기호(signa data)’³⁾라는 개념이다. ‘규약적 기호’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적 기호’와 상대되는 ‘인간의 언어’라는 의미로 쓰였던 용어이다. 이것을 성어거스틴은 발전시켜 영적인 세계를 규정하기 위한 기호 즉, 정신 어휘(mental words)라는 것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기호를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선 철학의 유용한 도구로서 주목하였다.⁴⁾ 중세의 초기 기호학은 고대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담은 매체를 찾는 노력에서 태어난 성과였던 것이다. 본인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기호를 사용하였던 그의 태도에서 기호에 본질적인 담론을 담아볼 수도 있겠다는 본인의 생각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기호는 의미 전달 뿐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담은 정신 어휘가 될 수 있다.

기호를 예술 작품에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이론적 지지는 해석의 확장가능성에 대한 연구인 언어현상(Semiosis)⁵⁾이다. 기호는 그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해석자의 타성(habit)⁶⁾의 결합으로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갖게 될 수 있다. 그것은 해석자가 기호의 의미범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장과정을 찰스 샌더스 퍼스는 ‘언어현상’이라고 정의했다. 기호는 해석될 때

3)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이의 논쟁에서 발생한 개념이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 기호’의 상대적 개념으로 주로 의사 소통의 목적을 위해 계획된 기호이다. 폴 코블리, 『기호학』, 김영사, 2002, p9

4) 폴 코블리, 『기호학』, 김영사, 2002, p10

5) 미국의 기호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가 주창한 삼원론. 그는 소쉬르의 이원론 (기표, 기의)과 다른 차원의 이론을 적용하였는데 그것은 기호작용(Semiosis)라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기호는 표상체와 대상체, 해석체의 세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표상체가 기호자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전달되는 대상이 있고 그 전달 과정에서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skima과 같은 환경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해석체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애초엔 표상체만 기호자체였는데 대상체에 전달이 되면서 대상체와 해석체까지 기호자체에 포함되어 의미의 몸집과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몸집이 커진 기호가 다시 새로운 대상체를 만나면 또다시 해석체가 등장하여 몸집이 커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영원히 확장일로로 달리게 된다. 즉 작은 기호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찰스 샌더스 퍼스, 퍼스의 기호사상, 민음사, 2006, P142

6) 미국의 기호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타성(habit)을 통해 기호의 최종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무의식적 상호주관적 함의를 통해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폴 코블리, 『기호학』, 김영사, 2002, p163

최초의 발화자의 의도와 달리 확장되기 마련이다.⁷⁾ 단순한 기호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도 관객의 반응을 통해 끊임없는 해석의 확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호의 해석을 위한 세 번째 이론적 근거는 ‘연상 작용’이다. 이것은 기호에 있어서의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석의 확장성이다.⁸⁾ 화살표의 날카로운 형태와 뱀과 같거나, 행글라이더와도 같은 형태, 성기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형태적 유사성은 관객의 상상력을 통해서 현시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사성을 통한 상상력의 자극은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⁹⁾적 작품을 해석할 때 주로 나타난다.

위의 세 가지 이론을 통해 단순한 시각기호도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기호가 될 수 있으며, 거기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활용한 본인의 작품 형성에 기호의 해석적 확장성 이론을 적용하여 보자.

2) 화살표(arrow sign)의 유래와 의미

단순해 보이는 이 화살표는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2세기에 그리스에서 발견된 돌판에 발자국 모양으로 방향을 지시한 것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4세기 이태리 서적에서 검지손가락질(manicules)¹⁰⁾로 변형되었다가 다시 19세기에 실제 화살 모양(archer's arrow)으로 바뀌었으며, 이것이 점차 단순화되어 현재의 화살표(arrow sign)가 되었

7) 일반적으로도 예술작품이 해석자의 해석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거대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프라하 학파인 얀 무카로프스키(Jan Mukarovsky)의 예술해석이론이다, 폴 코블리, 『기호학』, 김영사, 2002,p155

8) 미셸 푸코, 말과 사물, 민음사, 1986, 101P

9)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기법으로 무의식적 자동작용이라고 한다. 일체의 이성적 통제 없이 행하는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김형수, 세계 미술 용어사전, 월간미술, P287

10) Robert J. Finkel, University of Florida MFA thesis 『Up Down Left Right』, printinghistory.org, 2011

다. 이러한 유래를 지닌 화살표(arrow sign)의 사전적 정의는 『방향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화살 모양의 표지』이다.¹¹⁾ 이 정의를 해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지시(indicating)의 의미와 둘째, 화살 모양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초현실적 연상 작용이 그것들이다. ‘지시(indicating)’는 가장 초기적인 의사소통수단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아직 발화적 언어 체계를 갖지 못한 유아나 유인원의 경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의사소통 도구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손가락이나 눈빛, 턱이나 발 등의 신체 일부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식이다. ‘이것, 저것, 나, 너, 저기로, 여기로, 뒤에서, 앞으로, 떨어진다, 올라간다, (코를 가리키며) 냄새난다, (귀를 가리키며)들린다, (머리를 가리키며)아프다, (배를 가리키며)고프다, (해를 가리키며) 높다, 뜨겁다, 밝다, 낮이다, (달을 가리키며) 밝다, 바뀌었다, (달이 비친 강을 가리키며) 비친다, 흔들린다, (맹수를 가리키며) 도망가라, (사슴을 가리키며) 잡아라’ 등으로 예시할 수 있다.¹²⁾ 이것이 ‘지적’의 의미가 사용된 화살표 작품들의 원형이다.

2) 연상 작용을 활용한 화살표의 은유적 접근

이번엔 화살표의 또 다른 해석의 확장방법인 ‘초현실주의적 연상 작용’을 활용한 예술 표현을 살펴보자. 화살표는 그 형태의 끝(tip)의 날카로운 형상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켜 찌르는 공격적 형상을 갖고 있다. 이것을 ‘지적(point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적’의 의미는 비난이나 따돌림, 공격, 성찰 등의 행위에 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화살표 하나가 나아가다가 돌이켜 자신의 줄기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을 본 관객은 일반

11) arrow sign: a symbol used on signs to show a direction 캠프리지 영한 사전

12)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한다, 이숲, 2013, P19

적인 화살표에서 느끼는 지시의 의미와는 다른 어떤 연상을 하게 될 것이다. 화살표가 자신을 성찰한다고 생각하거나 자학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또 만약 다수의 화살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관객이 본다면 그것은 단지 엉킨 끈으로만 보이진 않을 것이다. 관객에 따라 ‘복잡하다’, ‘여럿이 지나간 동선’, ‘인생의 방향이 얽혀버렸다’ 는 등의 연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이고 실용적인 기호의 방식과 조금만 다르게 기호를 배치해도 관객은 그 차이를 의식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를 작품에 이용한 것이 바로 초현실적 연상 작품이다.

앞에서 언어현상(semiosis)을 통해 설명했듯이 화살표의 해석은 그 기호적 속성으로 인해 기호의 방식대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살표에 대한 유추와 반응은 관객의 상황과 배경지식(schema)¹³⁾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시의 은유적 의미와 형태의 유사성에서 오는 초현실주의적 연상 작용을 동시에 활용하면 개인의 의식흐름이나 사회적 풍자를 넘어서서 종교적 아이콘과 같은 특정 캐릭터(character)에 대한 은유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상 작용에 대한 은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인간 내면의 의식적 흐름이나 공격성 등 내적인 갈등을 화살표로 은유하는 예를 들어보자. 하나의 화살표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면 관객은 ‘이상’, ‘이데아’, ‘천국’ 등을 연상할 것이다. 또 화살표가 자기 자신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자아성찰’이 될 수 있고, ‘자기도취(narcissism)’도 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이슈를 은유하는 데에 화살표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보자. 화살표의 끝이 관객을 가리킨다면 관객은 ‘비난’,과 ‘집중’의 의미를 느끼며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땅을 가리키는 것을 본다면 ‘추락’, ‘절망’, ‘강림’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체적

13)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을 말한다. 즉, 지식의 추상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학생지식백과

으로 들어가서 최근 심리학에서 대두되는 심리학 이론인 ‘인정중독’을 화살표로 표현한다고 해보자. “현대인들은 사회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으려 노력한다.”¹⁴⁾라는 문장을 가져와서 이것을 작품으로 표현하자면, 집중된 관심을 여러 개의 화살표가 한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집중된 화살표들의 끝에 아무것도 없음을 관객이 목격하게 하면 그 집중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화살표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서로 교류하거나 집단으로 움직이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형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은유할 수 있다.

마지막 예로 자기 자신에 집중한다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틀어서 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죄책감이나 깊은 묵상을 의미할 수 있다. 규약적 기호를 정신 어휘와 매치시키려 하였던 어거스틴의 고백록¹⁵⁾처럼 내면을 향한 끊임 없는 성찰을 이 화살표들의 집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살표의 상징성과 은유적 성격은 기독교 뿐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적 아이콘의 본질을 담은 정신 어휘와도 맞는 규약적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이다.

2. 작품표현방법

1) 형태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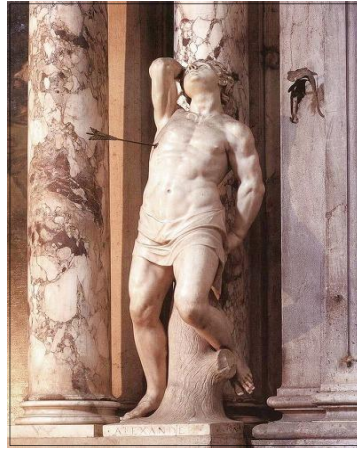
본인의 작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시의 의미만을

14) 이인수, 이무석, *누구의 인정도 아닌*, 위즈덤 하우스, 2017, p22

15) [Confessions, 告白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40세 때 저술한 자서전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저술 중의 하나이다. 두산백과

차용하여 내면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두 번째 유형은 다수의 화살표로 사회적 관계에 대해 풍자하는 작품이다. 세 번째 유형은 화살표의 형태적 유사성을 활용하고 거기에 몇 가지 기호를 더하여 초현실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종교적 icon 작품이다. 개인의 내면에 대한 작품으로는 【작품 1】 , 【작품 2】 , 【작품 3】 이다. 사회적 풍자에 대한 작품은 【작품 4】 , 【작품 6】 을 들 수 있고 icon을 재현하는 작품은 【작품 8】 , 【작품 10】 , 【작품 12】 이다.

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작품 1】 을 예로 들어보겠다. 지시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그 화살표의 끝을 겨누고 있다. 결국 화살표는 외부의 무엇인가를 비추도록 고안되어 있으나 그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의식이 있는 존재들과 다른 탁월한 태도이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다. 사회적 풍자 작품 중에서는 【작품 3】 소통을 예시로 설명한다. 이 기호는 소통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이컵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의 모양처럼 소통을 두 개의 주체가 서로를 향해 보내는 흐름이라고 보고 두 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 점에서 다른 점을 향해 일방적으로 화살표들을 전달하고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 소통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의도한 작품이다. 화살표 기호는 소리나 메시지와 같이 방향성을 내포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표현하는 데에 조형요소(방향성이나 규모, 연결 등)가 훨씬 직접적이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도판1> 알레산드로 비토리아
/ 성 세바스찬 1600, Marble,
height 170 cm
San Salvatore, Venice

세 번째 유형인 초현실주의적 연상을 이용한 캐릭터(character) 재현 작품 중에서는 【작품 10】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성세바스찬¹⁶⁾은 화살에 맞으면 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닌 군인으로 유명하다. <도판1>은 그를 함축적으로 재현해낸 고전작품이다. 성인인 그에 대한 본인의 해석은 그가 고통과 환희를 동시에 지녔으며 천국을 지향하였으나 반면 세상과 맞서기 위해 발을 확고하게 디디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세바스찬의 비명과 환희를 표현하기 위해 본인은 여러 개의 기호 부품unit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든 것이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판2>성세바스찬 해부도를 보면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 기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16) 성세바스찬(Saint. Sebastian.3~4세기) 갈리아 출신 로마 군인. 나르본 태생. 밀라노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군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 황제에게 사형을 받았다. 화살을 맞고 기둥에 묶여있던 그를 이레네라는 미망인이 구해줌. 그러나 황제 앞에 돌아가 그리스도교를 폄박하지 말 것을 항변하다가 몽둥이에 맞아 로마의 하수구 클로아카 막시마에 던져졌다. 후에 여인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시신 위치를 알렸다고 한다. 운동선수, 사수, 테피스트리, 제작자, 교통순경의 수호성인이다. 로사 조르지, 성인이야기, 예경, 2006, P177



<도판2> 성 세바스찬 해부도

1)부분은 하늘을 지향하며 웃는 얼굴이 캐릭터화 되어 있다. 여기서 화살표는 성세바스찬을 맞춘 화살임과 동시에 영원을 지향하는 화살표로 중의적으로 사용되었다. 2)부분은 우는 눈을 3)부분은 신념을 의미하는 등불을 상징한다. 4)부분은 사랑의 모양을 한 마음의 열매를 5)부분은 꺾어버린 화살의 날개부분임과 동시에 활짝 펴고 있는 손의 모양을 암시하였다. 6)부분은 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는 받침대를 의미한다. 이 모든 요소가 구성되어 결국 한 덩어리의 성인 기호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초현실적 연상기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작품을 하나 더 예시하여 본다. 【작품 8】은 기호학의 창시자이며 ‘규약적 기호’라는 용어를 고안한 당사자이기도 한 성어거스틴¹⁷⁾에 대한 경의로 한 만든 작품이

17) Saint Augustine(AD354~430) 교부. 알제리에 해당하는 타가스테에서 태어남. 이교도 아버지와 그리스도교인인 어머니 성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나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마니교도가 되어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다. 밀라노 등에서 수사학과 철학을 가르치다가 성암브로시오의 설교에 감화되어 386년에 세례를 받는다. 아프리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사



<도판3> Saint Augustine, by Philippe de Champaigne, 1650.

다. <도판3>은 캐톨릭의 성인인 어거스틴의 특징을 한 장면에 담아놓은 중세의 명화이다. 그림에서 성어거스틴은 외부로부터는 오직 신으로부터만 영감을 받고, 골방에 있으며, 자학과 자성을 반복하며 고백록을 쓰고 있다. 그의 사색은 매우 지적이며 내면적인 충동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그림에 대한 본인의 해석은 종교적 성찰이 반복적이고, 몽환적이며, 근원적인 욕망에도 닿아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추상적 요소를 기호화하여 <도판2>골방의 성어거스틴에 재구성하여 보았다. 이것을 평면 유희드로잉으로 만들어낸 【작품 7】에서 화살표는 외부에서 오는 영감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중심부를 끊임없이 주목하는 신의 가학적 성찰의

제서품을 받고 주교가 되었다. 참회록을 기록하였으며 연구에 몰두한 주교 모습으로 그려진다. 인쇄공들과 신학자들의 수호 성인이다. 로사 조르지, 성인이야기, 예경, 2006, P198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체 구도는 여러 개의 화살표와 기호들이 중심점으로 향하는 모양인데 화살표가 갖고 있는 비난의 의미를 활용하여 자아성찰의 담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2) 색채표현

본인의 작품 제작은 일관되게 단색조의 단순한 드로잉에서 평면회화로,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입체로 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기호가 지닌 원형적인 이미지가 ‘명료하고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입체적이기 보다 평면적인 것으로, 장식적인 형태보다는 절제된 형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은 평면의 그것을 입체화하면서 기호가 생명력을 갖고, 그 의미해석이 더욱 확장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호 드로잉에서 회화로, 회화에서 입체로 형태와 색채를 복합화 하는 것이다. 단색조의 드로잉에서 회화로 변해가는 과정은 쉽게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물성을 지닌 추상의 색채를 통해 단순한 기호 해석의 확장을 돕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회화에서 색채를 다루는 관점과 그것이 입체작품이 되었을 때의 차이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회화에서 본인은 색채들을 섞어서 무엇인가를 재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색채 자체가 자신을 최대한 재료 자체의 물성으로서 끝까지 주장하도록 원색 그대로를 나이프로 발라 배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평면 캔버스 위에서의 실재감을 물감 자체의 물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호의 확장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입체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조각은 평면회화와 달리 이미 그 자체가 실재하는 물질이고 공간을 점유하는 양(+의) 공간이므로 굳이 물감을 채색해서 물성을 재현해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각의 표면에 화려한 추상적 색면을 바르는

의미는 관객에게 그 조각이 기호를 넘어서서 세상을 반영하고 관객의 연상을 환영하는 심리적 투사의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기호가 의미 전달만을 위한 실용적인 것일 뿐 아니라, 해석자들과 함께 세상 속에 입체로 살아있음과 얼마든지 관객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연상하여도 좋은 심리적 대상임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입체작품에 있어서 색채는 평면작품에서와는 다른 필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조각에 입혀진 색채는 기호가 물리적 세계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관객의 심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방향성 지시를 넘어서, 물성 추구를 지나, 화려하게 베풀어진 색채를 통해 해석자들은 기호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의 맥락을 적용하여 확장시키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호현상(semiosis)』은 관객의 해석욕구와 함께 작품의 의미를 무한히 확장시켜 줄 것이다. 【작품 2】의 경우를 보면 본인의 입체작품에 있어서의 색채사용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단순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기호가 화려한 색채를 만나서 새로운 상상의 단초를 제공하는 입체물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해석자들의 연상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색면들의 추상성을 고수한다.

입체 작품에서 선으로 면을 분할하는 방식은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조각에서 영향을 받았다. 외곽라인을 그을 때 어떤 선은 조각의 형태를 반영하고 또 다른 라인은 오히려 형태를 무시하여 단순한 형태의 기호를 유기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선긋기는 입체와 평면회화의 경계에서 서로의 장르의 장점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입체적인 형태의 엣지(edge)를 무시하고 여러 면을 넘나드는 선은 회화가 지닌 공간에서의 자유를 입체조각에서도 느끼게 하고 반대로 입체작품의 엣지(edge)를 그대로 따라 그어진 형태를 강조하는 외곽선 긋기는 실제의 입체공간에 순응하는 형태강조로 사용될 수 있다.

3. 작품 분석



【작품 1】 I am what is around me

【작품 1】 I am what is around me

연도 : 2017

크기 : 200*200*250cm

재료 : 압출스티로폼위에 퍼티, 아크릴 채색, 바니시 도장

제작방법

- 1) 압출스티로폼을 깎아서 원형을 만든다.
- 2) 퍼티를 발라 원형을 보강한다.
- 3) 굳은 다음 연마하고 아크릴 채색 후 우레탄 바니시 칠로 마무리 한다.
- 4) 관객의 시선에서 볼 때 위압적인 구도로 설치한다.

작품설명

기호의 정의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거나 표현하거나 재현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그 정의를 비틀어 역설한 것이다. 하늘로 뻗어나가던 화살표가 자신을 감싸 스스로의 환경이 되고 다시 자신을 가리킨다. 자신이 자신의 환경이자 자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이다. 단순한 하나의 화살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역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의 재료는 압출 스티로폼이다. 열커팅으로 평면의 스티로폼 부품을 만들고 우레탄 본드로 각 부품을 부착한다. 부품과 부품의 사이엔 나무 뼈대를 박아 중력을 견디게 하였다. 표면엔 퍼티를 발라 표면정리를 하고 사포질을 한 후 에나멜페인트로 매끄러운 표면처리를 하였다.



【작품 2】 Pointer

【작품 2】 Pointer

연도 : 2017

크기 : 60*60*250cm

재료 : 압출스티로폼 위에 퍼티, 유화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제작방법

- 1) 스티로폼을 깎아서 원형을 만든다.
- 2) 퍼티를 발라 원형을 보강한다.
- 3) 굳은 다음 연마하고 유화와 금박을 바른다. 바니시 칠로 마무리 한다.
- 4) 관객의 시선에서 볼 때 위압적인 구도로 벽에서 튀어나와 화살표 축 끝이 관객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작품설명

하늘을 향한 거대한 화살표이다. 산치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서의 플라톤이 가리키는 하늘처럼 위라는 방향성이 비유하는 이데아, 이상향, 하늘을 향한 발돋움과 집중을 의미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화살표로 표현한 작품이다. 장식 없이 방향성과 스케일만을 강조한 검정색 indicator와 최대한 화려하게 장식하여 의미를 연상하게 하는 indicator로 나누어 대칭적으로 제작하였다.

재료적 기법은 【작품 1】 과 같이 압출 스티로폼을 열선으로 커팅하고 우레탄 본드로 부착하여 형태를 만들었다. 퍼티작업 후에 검정색의 indicator엔 아크릴로 채색을 하였고 화려한 색채의 indicator엔 유화 물감과 금박을 입힌 후 바니시로 코팅하였다.



【작품 3】 love

【작품 3】 love

연도 : 2017

크기 : 50*100*9cm

재료 : 압출스티로폼 위에 퍼티, 아크릴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제작방법

- 1) 스티로폼을 깎아서 원형을 만든다.
- 2) 퍼티를 발라 원형을 보강한다.
- 3) 굳은 다음 연마하고 아크릴 물감을 바른다. 바니시 칠로 마무리 한다.
- 4) 벽에 다른 드로잉들과 함께 설치한다.

작품설명

원형 캔버스에 시리즈로 그린 여러 개의 작품인 『세미오시스』(semiosis 기호발전과정) 중에 중반부에 발생한 기호이다. 이상적인 두 개의 중용이 만나 하나가 되면서 충돌을 만드는 것을 사랑이라고 규정하였다. 다른 드로잉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다.

드로잉 작품들은 원형 캔버스에 페인팅 매디엄을 골고루 펴바른 후 검정 아크릴로 기호를 그리고 그 주위를 마치 스크래치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연필로 매디엄을 파내며 그렸다. 연필의 흑연이 캔버스 바닥에 흔적을 남기고 음각의 매디엄이 입체적 효과를 내어 기호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



【작품 4】 소통



【작품 5】 소통

【작품 5】 소통

연도 : 2015

크기 : 5100*60*10cm

재료 :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제작방법

- 1) 스티로폼을 깎아서 원형을 만든다.
- 2) 유리섬유에 폴리코트를 발라 원형을 보강한다.
- 3) 굳은 다음 연마하고 페인트칠로 마무리 한다.
- 4) 관객의 시선에서 볼 때 위압적인 구도로 설치한다.

작품설명

두 점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서로에게 지시를 보낸다. 그러나 정확하게 서로를 겨누는 것이 아닌 화살표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하게 설명한 소통의 모습이라고 보았다.

열선으로 컷팅한 압출 스티로폼에 석고붕대를 감아 만들었다. 기법상으로 특별한 점은 앞서 색채 표현에서 언급했던 뒤뮌페적 선을 사용한 면분할이다. 입체물의 형태를 따라가는 라인과 무시하는 라인이 평면회화와 입체조각의 특성을 모두 갖게 하는 입체 작품을 경험하게 한다.



【작품 6】 confrontation

【작품 6】 Confrontation

연도 : 2017

크기 : 120*130*120cm

재료 :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제작방법

- 1) 거울과 막대기로 뼈대를 만든다.
- 2) 압출스티로폼을 깎아서 원형을 만든다.
- 3) 석고 붕대로 원형을 보강한다.
거울을 붙이고 조명을 심는다.
- 4) 굳은 다음 연마하고 젯소를 바른 뒤 유화물감으로 채색한 후 바니시 칠로 마무리 한다.
- 5) 관객의 시선에서 볼 때 위압적인 구도로 설치한다.

작품설명

해석자인 관객들로 하여금 화살표 기호의 의미를 직접 직면하여 경험하도록 의도한 작품이다. 거대한 화살표의 끝이 관객을 향하게 하였다. 이 화살표의 끝엔 불빛이 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포함한 관객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게 하였다. 지시의 대상이 된 관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풍자적 작품이다.

원형의 벽거울과 나무 막대기로 뼈대를 만들고 압출스티로폼을 그 위에 붙였다. 소형 전구 소켓을 각 화살표의 끝에 고정하고 전선을 스티로폼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연결하여 전구가 켜지도록 설치하였다. 열선으로 성형하고, 석고붕대를 바른 뒤 유화물감을 칠하고 바니쉬로 코팅하였다.



【작품 7】 골방의 어거스틴 드로잉



【작품 8】 골방의 성어거스틴

【작품 8】 골방의 성어거스틴

연도 : 2016

크기 : 200*110*10cm

재료 :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제작방법

- 1) 압출스티로폼을 깎아서 원형을 만든다.
- 2) 석고붕대를 발라 원형을 보강한다.
- 3) 굳은 다음 연마하고 잿소를 바른다. 유화물감으로 채색하고 바니시로 마무리 한다.
- 4) 벽에 설치한다.

작품설명

한 아이콘의 상징들을 기호화하여 다시 재조립한 형식의 작품이다. 죄악이 남아있는 자기 자신을 질책하며 환상을 보며 사색하는 성어거스틴의 내면을 기호화 한 작품이다. 여기에 외부에서 자신에게 향해있는 화살표는 비난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신의 영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무거운 추와 수레바퀴를 함께 넣어 진중함과 시간에 대한 사색을 불러오도록 하였다. 색채는 조각에 반영된 세계를 의미한다. 뒤뮈페 면분활을 적용하였다.

평면회화의 모형을 압출스티로폼 위에 옮겨 부조형식으로 떼내고 석고붕대로 단단한 표면을 만든 뒤, 잿소로 코팅하고 유화물감을 바른다. 그런 다음 바니쉬를 발라서 마무리 하였다.



【작품 9】 화살에 맞은 성세바스찬
스케치 2015



【작품 10】 화살에 맞은 성세바스찬

【작품 10】 화살에 맞은 성세바스찬

연도 : 2017

크기 : 70*70*50mm

재료 : 스테인레스 레이저커팅, 아르곤 용접, 거울광

제작방법

- 1) 기호를 조합하여 회화로 기본형을 그린다.
- 2) 형태를 따서 레이저 커팅으로 각각 기호요소를 스테인레스로 따낸다.
- 3) 이 요소들을 입체형태에 맞는 구도로 새롭게 조합하여 용접한다.
- 4) 거울광을 내어 관객을 포함한 주위의 환경을 반영하게 한다.

작품설명

성어거스틴의 방과 함께 아이콘의 상징들을 기호화하여 다시 재조립한 형식의 작품이다. 성세바스찬은 자신의 소신을 지킨 로마의 군인이었다. 화살에 맞아 죽진 않았지만 후에 맞아서 순교한다. 그는 지조를 지키며 환희를 느꼈고 동시에 고통하였다. 화살표는 이러한 그의 기개와 신에 대한 찬양을 의미한다. 웃는 듯, 우는 듯한 얼굴모양은 그의 환희와 고통을 동시에 보여준다.

<도판2>와 같이 평면 회화의 요소들을 부품화하여 커팅 후 입체의 형태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든 작품이다.



【작품 11】 이카루스 스케치 oil on canvas
2015



【작품 12】 이카루스

【작품 12】 이카루스

연도 : 2017

크기 : 200*250*50cm

재료 : 압출스티로폼위에 석고붕대, 유화채색, 투명우레탄 코팅

- 1) 앞도적인 크기의 화살표를 스티로폼을 깎아서 원형을 만든다.
- 2) 유리섬유에 폴리코트를 발라 원형을 보강한다.
- 3) 굳은 다음 연마하고 페인트칠로 마무리 한다.
- 4) 관객의 시선에서 볼 때 위압적인 구도로 설치한다.

작품설명

신화 속의 아이콘인 이카루스에 대한 연상을 기호로 만들어 그 기호들로 다시 비행체를 만들었다. 화살표 기호의 의미를 직접 직면하여 경험하도록 의도한 작품이다. 불완전한 비행에 대한 욕망을 비틀어 관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듯한 상징적 의미를 주는 풍자적 작품이다. 화살표는 상승욕구를 나타낸다. 새머리 모양을 화살표로 적용하여 상승의 방향을 연상하게 하고 날개모양과 바람을 상징하는 기호 등을 적용하여 초현실적 연상을 갖게 하였다. 평면회화를 압출 스티로폼에 옮겨 유화물감을 바로 바르고 바니쉬로 코팅하였다. 비상의 느낌을 주기위해 사선으로 설치하였다.



<도판4> The Fall of Icarus
- Peter Paul Rubens

Ⅲ. 결 론

본 논문은 기호가 어떻게 시각예술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화살표를 활용하여 그 적용과정을 이론화하고 실증하였다. 이 과정 중에서 개념들을 기호에 담기 위해 다양한 기호학 이론을 차용하여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개념을 갖은 기호가 예술작품의 주요한 재료로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상을 표현하고 철학적 사색을 유도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도 제안하였다.

또 지시기호의 실제적인 작품적용을 통해서 기표로서의 예술작품의 형태가 반드시 전통적인 평면이나 조각이 아니라 행위나 빛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음도 발견하여 향후에 작품이 회화나 조각을 넘어 설치작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호는 본래 딱딱한 이미지이고 기호학은 그 현학성이 다른 어떤 학문의 그것보다 강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호학을 작품에 적용하기보다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기호적 특성을 분석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왔다. 본인은 이 논문에서 기호의 예술적 활용을 직접적으로 시도하였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호학의 깊고 난해한 개념을 작품에 온전히 담았다기보다 다소 피상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한 정도인 것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의 관객이 작품을 통해 학문을 이해하려하기 보다는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길 바라는 것처럼 기호학에 대한 얕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에서 공통 경험과 언어로 공유되고 있는 기호들의 예술적 활용 가치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된다면 사물의 본질과 추상적 개념을 공유하고 사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제 막 시작된 기호의 시각 예술화를 더욱 발

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 다른 이론들을 새로이 연구하여 적
용함으로써 이러한 체계가 하나의 새로운 예술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
도 예상하며 본 연구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박일호, 『예술과 상징 상징형식』, 예전사, 2006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이숲, 2013
이인수, 이무석, 『누구의 인정도 아닌』, 위즈덤 하우스, 2017

《번역본》

-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노트』, 인간사랑, 2007
찰스 샌더스 퍼스, 『퍼스의 기호 사상』, 민음사, 2006
마르틴 줄리 『이미지와 기호 L'IMAGE ET LES SIGNES』, 동문선, 1994
폴 코블리 『기호학』, 김영사, 2002
로사 조르지 『성인 이야기』, 예경, 2006

《홈페이지 및 기타》

www.printinghistory.org

Robert J. Finkel, University of Florida MFA thesis "Up Down Left Right.", 2011
www.printinghistory.org/arrows

google 사전

<https://www.google.co.kr/search?newwindow=1&dcr=0&q=%EC%82%AC%EC%A0%84#dobs=%EA%B8%B0%ED%98%B8&spf=1511756723265>

사이언스 온

<http://scienceon.hani.co.kr/108517>

ICMS 국가지정 수리과학연구정보센터

http://icms.kaist.ac.kr/mathnet/math_list.php

캠브리지 영한사전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arrow>

네이버 학생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9373&cid=47319&categoryId=47319>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2s0881a>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1367&cid=40942&categoryId=315>

75

ABSTRACT

The Study on Indicative Sign as a Method of art

- around my work -

Lee, Soung-soo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rt

Sun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how to use commonly used simple signs in art works. Signs are designed in a way that is simplified for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efforts are made to increase the visibility for this purpose. I have added decorations and metaphors to these signs to create works of art that are the trigger of philosophical thought in addition to practical meaning. Since the definition of the sign itself is an indication to reproduce, direct or explain another thing, I have studied the artistic use of the sign by choosing the arrow sign that best represents this meaning as representative sign.

This paper is based on the works produced in 2015 ~ 2017.

Chapter I introduces the research direction and purpose of my work.

In Chapter II, the main text, first, the significance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artistic use of symbols are described. Secondly, I use icons as the most common signs to describe the icons and images used in the application, and analyze them individually. In addition, I studied how to use signs as personal and artistic tools by changing the indicative sign (arrow) that has been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practical information transmission to the use of surreal reminiscence or philosophical confrontation.

Chapter 3 concludes this paper and presents the future direction of work.